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김상운 옮김

자크 데리다

탈구축과 정의



Jacques Derrida

La déconstruction et la justice

월간 멀티튜드
multitude.co.kr

현대사상의 모험가들

데리다: 탈구축과 정의

Jacques Derrida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김상운 옮김

월간 멀티튜드

multitude.co.kr

일러두기

1. 이 책은 高橋哲哉 『デリダ——脱構築』(現代思想の冒険者たち, 講談社, 1998)과 이 책을 약간 ‘갱신’한 『デリダ——脱構築と正義』(講談社学術文庫, 講談社, 2015)의 새로운 내용을 합쳐 번역한 것이다.
2. 데리다를 비롯한 인용된 글들은 필자의 인용문은 본문에, 한국어 번역본이 있을 경우에는 각주에 해당 쪽수와 함께 표기했다. 그러나 한국어 번역본이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프랑스어 원문을 확보하여 옮긴이가 번역한 것을 각주에 붙였다.
3. 각주는 모두 옮긴이가 붙인 것이다. 가독성을 위해 본문의 출전 등을 각주로 이동한 것도 있고, 이해를 위해 덧붙인 것들도 있다.
4. 이 책은 현대정치철학연구회의 세미나를 위해 발간한다. 자크 데리다의 (미) 번역 저서들을 (재)번역하고, 이와 관련된 강의를 위해 기본적인 소개가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매우 오래된” 이 책을 번역했다.
5. 제이슨 포웰의 『데리다 평전』(박현정 옮김, 인간사랑, 2011)과 같이 곁들여 읽으면 좋을 것 같다. 또 문학이론과의 관련 속에서 접근하려면 ‘입문’으로서는 『자크 데리다의 유명들』(오문석 옮김, 앨피, 2007)가 좋겠다. 또 브누아 페터스의 데리다 평전 『데리다, 해체의 철학자』(변광배 · 김종현 옮김, 그린비, 2019)도 참조.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없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않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허용합니다.

데리다: 탈구축과 정의

1판 1쇄. 2021년 11월 01일

지은이. 다카하시 테쓰야
옮긴이. 김상운
표지. 김상운

비매품

머리말

001 “나를 읽어봐. 네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텍스트에는 비밀이 있다. 한 번만 읽어도 모조리 알 수 있어서 아무런 해석도 필요치 않은 듯한 텍스트, 알았나 싶으면 역시 수수께끼가 남은 것 같아 되풀이해서 읽도록 권유하는 곳이 전혀 없는 텍스트는 대체로 읽을 만한 텍스트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 데리다는 어떤 대목에서, 대략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데리다를 다시 읽었을 때만큼 이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었다.

텍스트가 어떤 비밀을 둘러싸고 제시하는 복수의 독해 가능성. 그것들 사이에서 선택한다는 것이 해석한다는 것이리라. 해석한다는 것 없이 읽을 수는 없다. 즉, 선택하는 것 없이 읽을 수 없다. 이것도 새삼 통감했다.

데리다의 텍스트는 거의 모두, 데리다 자신이 읽는 것으로부터 성립한다. 데리다는 읽기의 전문가이며, 타자의 텍스트의 불러냄 — “나를 읽어봐” — 에 따라 해석을 제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가는 것이 그의 스타일이다(글로 쓰진 텍스트뿐 아니라, 이른바 역사적 현실도 그에게는 텍스트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나를 읽어봐”라는 불러냄에 따라 해석하는 것, 002 즉 선택하는 것 없이 그것에 접근할 수는 없다). 데리다 독해의 중요한 테마가 된 텍스트는 철학, 문학, 사상과 관련된 것에만 한정해도 방대한 수에 이른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루소, 칸트, 헤겔, 맑스, 니체, 프로이트, 후설, 하이데거, 벤야민, 바타유, 레비나스, 푸코, 라캉, 레비-스트

로스, 셰익스피어, 보들레르, 카프카, 조이스, 말라르메, 발레리, 아르토, 주네, 자베스, 풍주, 첼란, 블랑쇼…. 곧바로 생각나는 유명한 사람들만 해도 대충 이런 식이다. 데리다를 읽는다는 것은, 이들의 텍스트를 읽는 데리다의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리다를 읽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저자들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 그리고 데리다를 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저자들을 동시에 해설해야 한다! 한정된 지면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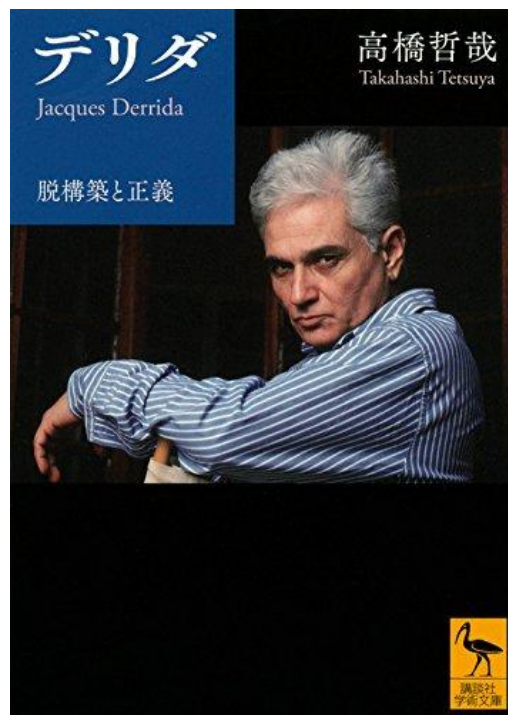
1960년대부터 쉴 새 없이 계속 써내려간 수많은 텍스트의 무리. 그 하나하나가, 쉽사리 요약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약하려고 하는 의지의 이면을 적고 있는 듯이 적혀 있다. “나는 난해하다고 해서 난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고속도로를 가는 것처럼” 철학을 빨리 이해하라고 요구하는 풍조를 경계하고, 타자의 타자성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실연해 보였듯이, 아무리 알았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수수께끼가 남고, 비밀을 느끼게 하는 텍스트를 쓰는 것이 데리다이다. “나를 읽어봐. 네가 그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라고 외치며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 단념할 수도 없고, 나는, 어쨌든 간에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과감하고 대담하게 하기로 했다. 이 책은 데리다의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책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현시점에서, 내가, 이것만은 짚어두고 싶다고 003 생각한 한에서, 데리다의 사상을 말하려고 한 책이다.

선택의 요점은 본서의 구성에 나타나 있다. 우선 본서에서는 평전 부분을 1장에 묶고, 2장 이하에서는 탈구축의 기본적인 ‘논리’의 줄거리를 추구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이 책은 이런 점에서 데리다의 작업의 넓이와 다양성을 재현하기보다는 그의 사상의 핵심에 있는 ‘철학적’ 모티프를 포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장에서는 초기 데리다가 수립한 ‘형이상학의 탈구축’의 조감도를 보여주는 텍스트 독해의 실례

를, 플라톤으로 좁혔다. 3장에서는 항상 데리다의 사고의 중심에 있으며,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에도 반드시 발상의 원천으로서 의식되고 있는 ‘언어’의 시각을 정리했다. 4, 5장은 일본에서는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80년대 — 특히 그 중반 — 이후의 데리다가 주제화한 법, 정치, 윤리, 종교 등의 테마에 접근한다. 지금까지 일본어로만 데리다를 읽어 온 독자들은 이 부분만이라도 읽어준다면, 기존의 데리다의 이미지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가를 실감할 수 있지 않을까.

본서가 소묘하는 ‘탈구축’의 사상은 ‘언어’와 ‘법’을 두 개의 초점으로 삼아 전개되는 일종의 ‘정의’론이며, ‘타자와의 관계로서의 정의’의 모티프를 잠재적·현재顯在적으로 추구하고, 정치, 윤리, 종교, 역사에도 독자적인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이다. 탈구축은 많은 가능성에 열려 있지만, 나는 우선 이것만은 짚어두고 싶다고 생각했다.

데리다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를 읽어봐. 네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머리말	005
1장. 사막 속의 사막	011
1. 알제리의 유대인	013
2. 파리에서 파리로	024
3. 탈구축의 시대	030
2장.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049
1. 텍스트로서의 플라톤	051
2. 에크리튀르의 신화	064
3. 파르마콘의 놀이	082
3장. 언어, 권력, 반복	115
1. 원-에크리튀르의 폭력	117
2. 반복과 산증	141
3. 서명, 텍스트, 약속	159

4장. 법, 폭력, 정의	177
1. 탈구축의 두 가지 초점	179
2. 법의 힘	189
3. 아포리아로서의 정의	205
5장. 메시아적인 것과 책임의 사유	223
1. 아브라함과 책임의 역설	225
2. 유령의 폴리틱스	253
3.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	275
데리다 연보	291
주요 저작 요약	297
키워드 해설	323
독서안내	333
원판 후기	339
문고판 후기	343
해설: ‘새로운 결정의 사상’을 재도입하다	347
색인	357